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9주일
제27권 37호 (다해) 2007·8·12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등불

언제나 오실는지 바람은 수시로 불고
피를 태워 영혼의 심지를 고추 세우고
당신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펼터이며 살아가는 생명의 등불.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방학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마리아, 안암브로시오와 카타리나, 김철웅 베드로 차마리아와 홍아오스딩
	(생)박제임스 마르코, 한세종 베드로
주 일 낮 미사	(연)테니스 웨버, 최원순, 황지엽 요셉, 박호준 마리아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김옥주 마리아 조정행 프란치스코, 김철웅 베드로, 김경옥 요셉 모춘기 바오로, 강용운 요셉
	(생)이종민 요셉, 고규재 체칠리아, 채클라라, 채콜베 윤선희 로사, 장은서 올리아, 김안젤라, 김형미 데레사 심재순, 남가주 여성 제27차 꾸르실료 수료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8,6-9

화답송 ○복되다, 주께서 당신 기업으로 뽑으신
백성이여.<전례성가 86, 연중제19주일 C해>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라.
올바른 이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복되다, 그
하느님, 야훼이신 백성이여, 주께서 당신
기업으로 뽑으신 겨레로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야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여여뻔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1:1-2,8-19
〈또는 11,1-2,8-12〉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복음 루카(Luke) 12,32-48〈또는 12,35-40〉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주님께서는 기름진
말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Prince of Peace	183
봉헌	364	268,250
성체	God of Wonders	281,302
파견	Every Move I Make	181

1. 종교가 필요한 우리

▶ 종교란?

‘종교’(宗教)라는 말을 풀어 보면 ‘종’은 모든 것의 중심을,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것의 중심
이 되는 가르침’, 곧 ‘인생의 근본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으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언어에서 통용되는 종교
(Religion)의 어원은 ‘인간이 하느님을 다시 인식한다.’,
‘인간을 하느님께 다시 묶어 맨다.’, 또는 ‘인간이 하느님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인간
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다시 찾는 것’ 또는 ‘하느님과 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자
신의 근본을 알아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참 종교의 조건

인간의 근본과 그 길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참 종교가 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이성을 초월
할 수는 있어도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종교 때
문에 인간의 도리, 곧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
다. 셋째, 종교의 근본 진리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질되어서
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필요 없고, 다만 양심을 거
스르지 않고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
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종교가 단지 정신 수양을 하
는 것이라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
나 종교는 윤리 도덕과 같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영원한 삶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 종교적 삶

종교의 좋은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종교를 갖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치는데, 그 가르
침대로 살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불의한 사회보다 정
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
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늘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고 말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도 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종교에서 얻을 수 있습
니다. 천주교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우리
를 초대합니다. ◆출처: CBCK

〈계속〉

깨어있기

학창시절에 시험 때가 되면 밤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한 적은 없고, 공부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하며 며칠씩 밤낮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복음 말씀을 포함하여 오늘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이면까지도 꿰뚫어 보고 올바르게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그 밤”(지혜 18,6)에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떠날 준비를 하였던 것은,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지배 하에 강요되던 노예생활이 ‘현실’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느님만이 참된 ‘현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2독서(히브 11,1-2.8-19)는 깨어 있는 삶은 혹독한 시련의 삶이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약속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모르코”(히브 11,8)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은 늘그막에 어렵사리 얻은 외아들을 봉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깨어 있는 삶을 살았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믿음만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히브 11,13)처럼 살다가 떠난 이들이지만 이들은 결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현실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습다.

복음 역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사를 받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루카 12,41-48).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언젠가 돌아오실 주인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셈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바탕인 시간은 어느 순간이나 하느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루카 12,39-40). 하느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 판결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희망하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 김영국 요셉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모은기 다두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변혜경 올리아나	주일학교 소피아 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주일학교 아놀드 김
제물봉헌자			토렌스 북 3반	제물봉헌자			카슨/하버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3,012단 ☞ 총 합계: 169,911단
- ◆ 성모 승천 의무 대축일 미사: 15일(수)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 배론 청년회 찬미의 밤
 - 주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 일시: 8월18일(토), 오후 7시30분, 성당
 - 문의: 청년회 회장 강정현 시몬 (323)899-5581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Saint Margaret Mary 본당 로미타 축제
 - 9월7일(금)~9일(주일)
 - 금:오후5시~11시, 토:오전11시~오후11시, 주일:오후12시~9시
 - 성당 주소: 25511 Eshelman Ave,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Live Entertainment & 맥주 코너
 - Raffle 티켓 판매: 1장당 \$1 ● 문의: 김요한 740-1502
(1등 \$10,000, 2등 \$3,000, 3등 \$2,000, & more)
 - Raffle 티켓 판매 마감: 8월17일(금)
 - 모든 수익금은 본당 사목과 St. M.M. 학교기금으로 이용됨.

- ◆ 주일학교/한국학교/ 자모회/청년회 연수
 - 9월15일(토), 오전 9시30분~12시
 - 강사: 김알렉스신부, 성 토마스 성당 본당신부
- ◆ 주일학교 교사 Workshop
 - 9월15일(토), 오후 1시~4시, 강당
 - 대상 주일학교 교사 및 보조교사

❖ 예비자 교리반 소식 ❖

- ◆ 수요일 세례성사
 - 8월22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 중에
- ◆ 목요일 개강
 -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실

- ◆ 소공동체 분과 구역장 회의
 - 8월21일(화), 오후 7시
- ◆ 백삼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봉헌식 및 임명장 수여
 - 8월26일(주일), 오전 11시 낮미사 중
 - 대상: 협의회 회장단, 사목평의회, 운영위원회, 재무평의회, 특별위원회 소속 임원, 소공동체 분과 구역장과 반장, 제 단체 회장
 - ※ 위의 임원들은 전원 8월26일(주일) 11시 미사에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배워 가르치며 사랑해 줄 교리교사를 기다립니다.
 - 대상: 교리교사를 희망하는 남녀 교우
 - 문의: 청소년부장 김순희 모니카 ☎ 310-850-6253

☺ 축하합니다. ☺

◆ 혼배성사 8월11일(토) 오후1시
♡ 조성욱 토마스 & 이민정 리더아

-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8월 12일: P.V. 2반 (불고기 덮밥 \$3.00)
 - 8월 19일: 토런스 서 2반 (비빔밥 \$3.00)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곽효식	구자운	곽효식	구자운
김일선	김중환	김중환	김주량
노천수	모은기	모은기	민봉식
박정희	박준구	배기엽	송호창
신경훈	안동훈	오일순	오진자
오일순	오진자	이명렬	이명자
이근모	이명렬	이정희	장숙환
이연행	이영희	최애경	한혜숙
장영진	조경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350		합계: \$2,960	
미사헌금: \$ 2,538.80 2차헌금: \$625		감사헌금: 윤석구 홍석인	

남가주 소식

◆ 청소년들을 위한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집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 워싱턴성당 한국성모자/순교자 부조상 봉헌식 참가단 모집

- 내용: 1) 2박3일-미사참석+워싱턴관광+추기경님과 만찬
2) 3박4일-미사참석+워싱턴관광+뉴욕관광
- 참가비: 1) 2박3일 \$899 2) 3박4일 \$1,049
- 출발일: 9월21일(금) 오전 9시 LAX 출발
- 신청 마감일: 8월13일
- 문의처: 성삼 한인천주교회
사목회장 박흥기 요한 (213)500-7897

◆ 오웅진 신부님과 함께하는 “제2차 가정성화 피정”

- 8월22일(수), 오전9시~오후10시
- St. Emydius 성당 내 강당 (Lynwood 꽃동네 맞은편)
10900 California Ave., Lynwood, CA 90262
- 참가비: 무료 (점심 각자 지참, 저녁 식사 제공)
- 연락처: 951-302-3400

◆ 제20회 남가주 성령 쇄신대회

- 8월18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19일(주일), 오전8시~오후5시30분
- L.A. Technical College, Grand Theater
- 강사: 제럴드 월커슨 주교, L.A. 대교구 보좌주교
오웅진 요한 신부, 꽃동네 설립자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한국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박상대 마르코 신부, 백삼위 한인성당 본당 신부
정현철 알렉시오 신부, 성 그레고리 성당 본당 신부
- 연락: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 후원: 남가주 사제협의회, 남가주 평신도 협의회
가톨릭신문, 가톨릭 방송, 평화신문

◆ 제1차 남가주 청년 성령대회

- 8월24일(금) 오후7시~오후 11시
8월25일(토)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초청강사: 문다갯 신부님
신상현(야고보 수사/꽃동네 예수형제회 원장)
- 문의: 본당 기도회 회장 또는 KCRM (310)650-9058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	오후1시15분, 각방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배태임 안나 781-9199 8/10(금) 오후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8/10(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동수 베드로 618-8499 8/1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홍선자 데레사 212-5509 8/18(토) 오후6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408-3835	임형미 사비나 408-3835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런스 북 이복임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10(금), 오후 7시
	2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벨라멧다 213-718-0310 8/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311 8/20(월)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준비와 기다림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주일 복음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자. 지난 주일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는 것이었다. 재산은 오히려 탐욕을 불러와 생명을 더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탐욕이 극에 달하면 영원한 생명은 커녕 현실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들어 잘 가르쳐 주셨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의 힘으로 현재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미래의 삶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있을 것이며, 누구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빈손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이다. 오늘 복음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려는 하느님의 나라를 합당하게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 방법은 준비와 기다림의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는 준비로서,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는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慈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선은 기도와 단식과 함께 신앙인의 기본 덕목이다.

둘째는 준비하고 있는 기다림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잘 기다려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잘 수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던진 질문 앞뒤에 배치된 두 가지 예화에서 더욱더 잘 드러난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습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책임을 잘 관리하고 수행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준비와 기다림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영접할 모든 백성들, 특히 그 백성을 지도하는 책무를 맡은 자는 준비와 기다림에 더 큰 정성을 쏟아야 한다.

오늘 복음을 지난주일의 복음과 연결하여 보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준비와 기다림이 분명히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인자의 재림을 위한 종말론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오늘 복음은 금방 있을 줄 알았던 인자의 재림이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자 초조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했을 초대교회에 진정한 준비와 기다림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분명한 사실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의 창건과 세상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과 시각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와 기다림인 것이다. 준비와 기다림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준비 속에는 다가올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으며, 기다림 속에도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다. 이는 곧 준비와 기다림이 막연한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는 이의 태도는 준비와 기다림뿐이다. 교회는 그 동안 2,000년의 긴 세월을 준비하고 기다려 왔고, 최종적인 그 날과 그 시각을 향하여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세월동안 사라져간 사람들 안에서 그 날과 그 시각을 보았다. 이 말은 한 인간의 죽음이 바로 그 날과 그 시각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를 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죽음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자선을 통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산다는 비유의 뜻은 항상 근면하게 일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말한다. 등불을 켜 놓고 산다는 비유는 자신 안에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살아가는 마음자세를 뜻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생(生)을 마감할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그를 기쁨과 평화의 식탁에 초대하여 도리어 그에게 봉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매일의 준비와 기다림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 본당 주임 박상대 신부